



입지자 난립... 요동치는 광산구 선거판

내년 6·2 지방선거를 8개월여 남겨두고 광주 광산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광산구청장 선거는 전갑길 현 청장이 사실상 광주시장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청장 자리가 무주공산일 가능성이 높아 무려 10여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서구청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던 이정일 전 광주 서구청장이 14일 광산구청장 출마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뜨거운 물결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터에 이 전 청장이 출사표를 던져 선거판에 불을 지핀 셈이다.

민주당에서만 자천타천으로 광산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무려 9명. 이정일 전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유재신·이정남 광주시의원,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 김환규 전 북구 부구청장,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김범남 전

전갑길 청장 광주시장 출마 가닥... 일찌감치 구청장 후보 무주공산

시의회의장·시의원·前구청장·부구청장·정당인·교육위원도 가세

이용섭 의원 광주시장 도전 표명에 광산을 보낼 선거 여부도 관심

광주시장 비서실장, 김종오 김대중평화센터 위원 등이다.

우선 광산지역 현역 광주시의원 3명 모두 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의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각종 행사에 참석,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시장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남 의원은 당 기여도에서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유재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광산 2) 인구가 광산구의 절반을 차지해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김환규 전 북구 부구청장과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윤봉근 광주시 교육위원도 광산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범남 전 광주시장 비서실장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김종오 김대중평화센터 위원도 도전장을 냈다.

이같이 광산구청장 선거전이 뜨거워진 이유는 전

갑길 광산구청장이 일찌감치 광주시장 출마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전 청장은 지난 7월 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성장과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며 사실상 내년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 청장이 이 같은 계획이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의 행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이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로 의원직에 변동이 있다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자리로 비게 돼 또 한 번의 큰 선거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장 출마 뜻을 밝힌 이용섭 의원과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의원이 시장에 나서고 그 자리를 전 청장이 옮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현장과 시각

신종플루 대처 꼭 이래야만 하나



홍행기

정부부 차장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 데다 수역, 수습역 원이 들어간 축제를 억지로 취소하게 만들어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해도 된다니, 이런 막무가내식 탁상행정은 처음 본다."

지역의 한 단체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연인원 1천명 이상의 축제 및 행사 개최 여부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정하도록' 방침을 바꾼다고 발표하자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강행 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 징계' 운운하며 행사 취소를 강권하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방침을 선회한 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대책이 '호들갑'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일선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였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세계광엑스포와 디자인비엔날레, 김치문화축제, 명랑대첩축제 등 20여 개 행사가 개최를 보름 또는 한 달여 남겨두고 취소·연기 또는 축소된 상태다. 이 가운데 광엑스포의 경우 330억 원이 이미 투입되는 등 광주·전남에서만 500억 원 이상의 행사관련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산외에도 이들 행사가 길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사 취소에 따른 지역민들의 실망과 행정에 대한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순부터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취소한 광주지역 한 단체장은 사석에서 "신종플루로 지역민의 생명이 위협하리는데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단체장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정부방침이 바뀌었다고 행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단체장은 특히 "정부가 '지자체 판단으로 행사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방침도 결국엔 신종플루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렇게 신종플루 대책에 혼신을 빚게 되면 결과적인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광주시와 일선 구청,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해놓은 축제 및 행사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으나 애초 일정에 맞추기에는 시간이 워낙 촉박한데다,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행사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행사를 재추진하더라도 만에 하나,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 중 한 명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될 경우 지자체로서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행사 재추진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머뭇 만에 대책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행사 전면 취소'라는 길을 꺼내들

어, 일선 지자체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정부의 대응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dplane@kwangju.co.kr

北 '김정은=후계자' 사실상 공식화

북한 당국은 지난 7월경부터 북한 가정에 설치된 유선 라디오 방송인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정은(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은의 후계자 내정 사실이 상층

지도부 중심으로 전파되던 것이 이제는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김정은=후계자'가 사실상 공식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남측의 한 인사는 한 참관지에서 해설원이 "이곳은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은 청년대

장 동지께서 다녀가신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명승지나 사적지 등에 배치된 해설원들은 해당 참관지에 대해 종래는 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녀간 사실을 주요한 사항으로 소개해왔는데, 해설원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김정은을 거명했다는 남측 인사의 방북담은 '후계자 김정은'이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다는 관측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천수이벤 종신형에 대만 국론 분열

지지자들 판사 자택 시위

야당도 정치 쟁점화 시도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벤(58·사진) 전 대만 총통 부부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둘러싸고 대만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당 측은 '대만의 법치주의를 향한 초석을 깔았다'면서 환영하는 반면, 야당과 천수이벤 지지자들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재관부를 성토했고 나섰다.

대만 언론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판결이 객관적'이라는 의견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천 전 총통 지지자들이 담당 판사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

대만 일간지 연합보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천 전 총통에 대한 판결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 응답자가 34%로,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21%)에 비해 많았다.



천 전 총통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은 부인 우수전 여사에 대한 판결결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37%로, 과도하다고 지적한 응답자(1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中, 2003년 피격 탈북자 56명 시신 발견”

中 공안 당국 문건 공개돼

중국 경찰당국이 지난 2003년 10월 압록강에서 총격을 당한 56명의 탈북자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 이들 시신을 수습한 사실이 있었다는 중국 공안당국의 문건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집단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이 공개되는 처음인 일로, 이런 내용

이 사실이라면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12일 미국의 북한경제 관련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에서 확인한 중국 지린성 공안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2003년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한 탈북자 시신 56구를 발견했다.

같은 해 10월 7일자로 된 이 공문은 지린성 바이산시 참바이) 조선족 자치구 공

안국에 의해 작성됐으며, 10월 3일 오전 53구의 시신이 발견된데 이어 이튿날인 10월 4일 새벽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적고 있다.

공문에는 "검시 결과, 사망자들은 모두 북한 주민들이었고 56명 전원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는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이용해 김정일 위원장의 호화 저택 등 북한의 비공개 시설을 추적해온 미 경제학자 커티스 멜린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다. /연합뉴스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속 있는 표도 선풍,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선풍하세요!

KAS10M
399,000원
219,000원 (내비타 포함)

노비타비데 전문점 비데프라자

비데프라자 | 06320515-1144

연기/냄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YHB

www.yhb.co.kr